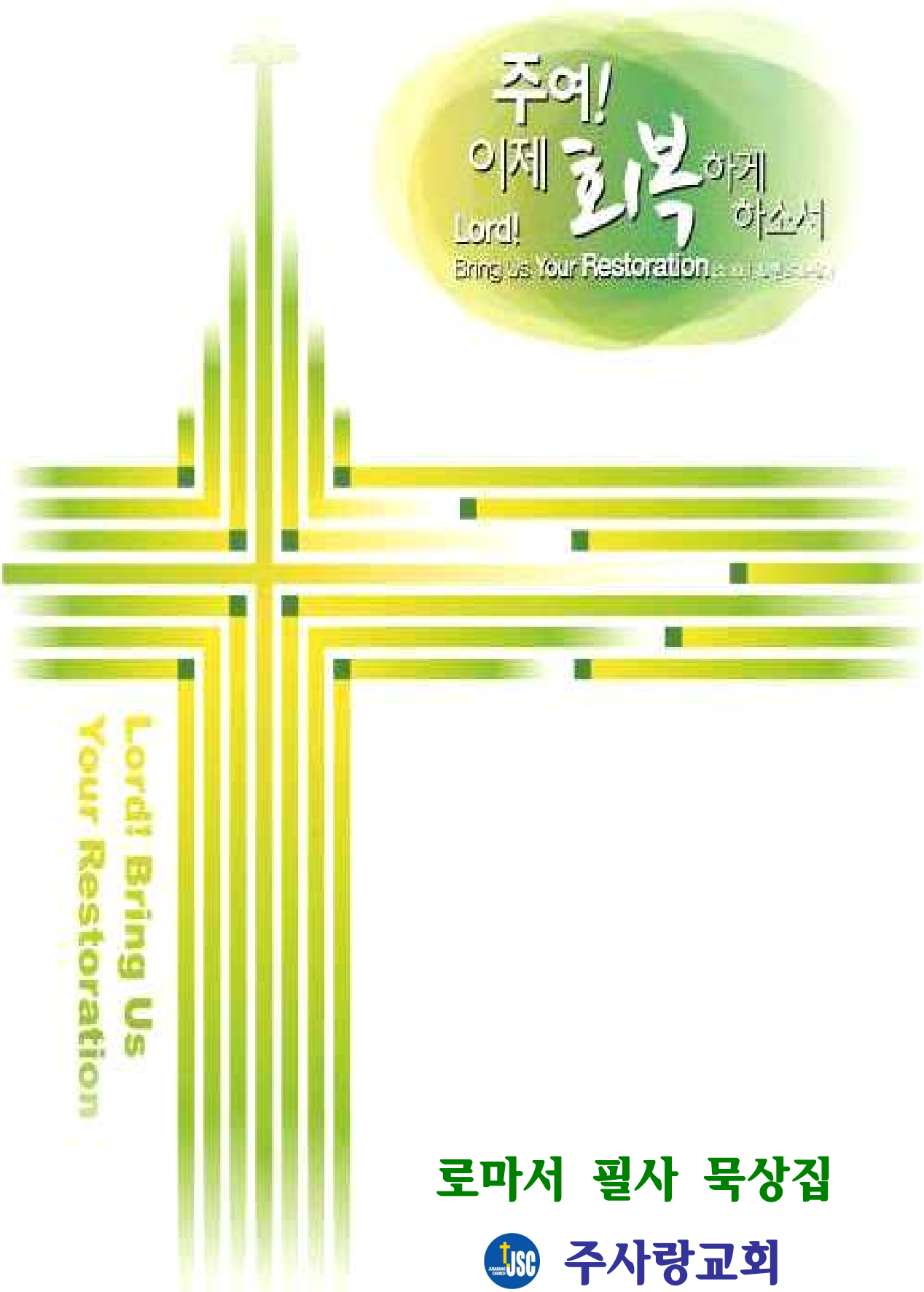

로마서 필사 묵상집

주사랑교회

나의 습관을 바꾸는 단순·반복·지속 훈련

● 습관은 과학이다.

듀크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40퍼센트는,
의사결정이 아닌 습관의 결과라고 한다.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이다. 습관은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습관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는 것이다.
한 번에 하나씩 집중적으로 습관을 바꾸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단순, 반복, 지속의 작업을 통해 가능하다.
통찰은 습관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 21일 마음 습관 훈련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몰츠의 연구는
스포츠 감독과 선수들이 크게 의존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뿌리가 되고 있다.
그는 외모의 교정보다 왜곡된 내면의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마음의 성형 수술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이든지 21일간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주장했다.

● 66일 무의식을 채우는 습관 훈련

2010년 런던대학교 제인 워들 교수는 9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습관 형성에 필요한 기간을 실험했다.
실험 결과 반복적인 행동은,
평균 66일이 지나면 무의식의 영역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우리의 뇌는 회로로 이루어진 신경 다발이고, 자극이 반복될수록 회로는 강화된다.
강화된 회로는 늘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이것이 습관의 과학적인 원리다.
습관은 과학에 기초한 반복, 지속 훈련이다. 습관은 반복이다.
행동의 반복이 무의식을 훈련 시킨다.
결국 '습관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의 전반부 동안에 얻은 습관들로 이루어진다. - 토스토예프스키
○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엔 습관이 나를 만든다. - 존드라이든
○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 윌리엄 제임스
○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 빌 게이츠
○ 만일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된다. - 디오도어 루빈
○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독서와 감사일지를 쓰는 습관이었다. - 오프라 윈프리

● 작심 삼일을 두 달 동안 계속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Kingdom Builder) 선포기도문 ●

■ 세례 받은 사람

⑴ 하나님 :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실한 종이다.

- 모든 주권, 모든 영광,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 주인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 첫 시간, 주간의 첫 날, 물질의 십일조, 첫 건강, 첫 자녀를 먼저 주님께 드린다.

⑵ 예수님 :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을 산다.

-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나의 십자가도 사랑한다.
-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매일의 공급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다.

⑶ 성령님 : 나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최고 최상의 인생을 산다.

- 성령님의 임재,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성령님과의 교통을 놓치지 않고 산다.
-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흐르게 할 것이다.
- 나는 생명을 치유하며 살리는 말을 사용하며, 썬쉽과 킹쉽의 사역자로 나의 일생을 드린다.

■ 광야 리더쉽 훈련

⑷ 수르광야 : 문제가 꼬이면 십자가를 적용한다. = 성자 예수님

- 회개하고 기준과 원칙 중심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돌아간다.

⑸ 신 광야 : 나의 매일의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 성부 하나님

- 하늘을 보며 말씀과 약속을 나의 매일의 공급으로 삼는다.

⑹ 르비딤 광야 : 영적 해갈을 위하여 기도할 때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세상을 적실 것이다. = 성령 하나님

⑺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 : 나는 파트너들을 세워 음부의 권세를 대항한다.
= 합심 기도, 일대일 사역으로 아말렉을 대적하라.

-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아말렉이 되지 않는다. (출애굽기 17:14~16)

⑻ 시내 광야 : 목자와 함께 교회를 위한 드림 팀을 만든다. = 영광스러운 교회

- 목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가 된다.

■ 킹덤 빌더 (Kingdom Builedr)스피릿 :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영성

⑼ 십계명 원칙 :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

⑽ 성막 예배 : 매일 성막 예배를 통해 지성소를 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 성막 예배 기도문 ●

① 문 :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번제단 :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의 고백)
③ 물두멍 : 자기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부인)
④ 떡 상 : 말씀과 기도로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⑤ 금등대 :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⑥ 금향단 :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⑦ 지성소 : 하나님의 철학과 꿈(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감추인 만나 :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양식을 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아론의 싹 난 지팡이 :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협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십계명 돌비 :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대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행복을 누리소서!

십계명 (The Ten Commandments) 기도문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삼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 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말라

1. 주여!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권위를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십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주여! 사람의 손을 빌려 쓰지 않으시고 직접 두 번이나 써 주신 유일하신 말씀이므로 믿고 따르는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 **출 24: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 **출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3. 주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冊)임을 믿나이다! 그러나 십계명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말씀이기에 절대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 주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주여! 십계명은 새 땅 새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셨사오니 가나안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나이다!

◉ 신 5:1-3 "[1]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6. 주여!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으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품고 있어야 하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듯이 마음속에 십계명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7.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사도 요한이 증언합니다.

◉ 계 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주여!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항상 유효한 계명이므로 복된 삶을 위한 사용 설명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8. 주여! 우리에게 주신 3가지의 보물인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품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9. 주여! 나와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법도인 십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므로 천 대까지 복을 받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 마 22:37-40 "[37]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날마다 평안과 환희에 찬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고백!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 기도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 주여!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주여! 사도신경의 라틴어 'credo'(크레도)의 어원이 '심장'을 뜻하는 'cre'와 '드리다'를 뜻하는 'do'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주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온전히 하게 하옵소서! 단순한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 주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5. 주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6. 주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주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믿습니다!

7.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보혜사(保惠師)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늘에 거할 소망을 주시며, 지금도 저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8. 주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팔 불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를 영접할 때에(살전 4:16~17), 부족한 저도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9.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0.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 다시 살아날 참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모든 기도를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생의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가장 완전하고 풍성한 기도

주기도(Lord's Prayer)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 주여! 그러나 눈 앞에 보이는 세상의 걱정거리들과 나의 평안, 나의 육신의 안락함만을 위한 기도밖에 드리지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십계명을 실천하며 주기도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주여! 주기도는 완전하고 풍성한 기도이며, 기도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과, 완전한 사랑의 기도임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 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5. 주여! 우리가 주기도 대로만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응답받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 주여! 그간 주기도를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중언부언의 기도로 드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가 뜻 없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그대로 실천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7. 주여! 고단한 일과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닫는 뜻 깊은 밤 시간에 지나간 하루를 되돌아보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비추어보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8. 주여! 주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사오니 주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이며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9. 주여! 주기도로 기도하면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식구들, 병고에 신음하는 이들,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도록 의탁할 수 있사오니 주기도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10. 주여! 주기도는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의 핵심이오니, 이제는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루어질 응답에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 마 6: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교회의 제직을 위한 기도

성도와 제직으로 12가지를 지키게 하소서!

◉ 딤후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 주여!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과 절대 긍정의 생각을 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절대 긍정의 생각을 품게 하소서!

◉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 주여! 가장 위대한 유산이 언어(言語), 즉 말이라고 하셨사오니, 최고의 축복은 언어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위로의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입술 속에 감사가 생활화 되게 하소서!

◉ 민 14:28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3. 주여!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과 감사로 경배를 드리는 날임을 믿습니다. 주일은 복된 날이요,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복된 날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거룩으로 평생 동안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소서!

◉ 출 20: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 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4. 주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임을 믿습니다. 공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고 제직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최고 최선의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게 하소서!

◉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5. 주여!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일조를 드리라는 이유는 십의 구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임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심기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십일조를 주 앞에 드려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 말 3:8~10 "[8]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였 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9]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6.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임을 믿습니다. 진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매일 생명의 삶을 규칙적으로 읽고, 한 구절씩 암송, 적용, 설교적기, 나누기, 간증을 하게 하소서! 주여! 말씀 앞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소서!

◉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7. 주여! 영혼의 기도는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회자를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옵소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인생의 승부를 기도로 걸게 하소서. 주여! 기도에 성공해서 모든 일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 살전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8. 주여! 주님의 지상명령은 선교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선교임을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다 군선교, 국내, 국외선교에 다 참여케 하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참여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주여!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길은 순종인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며 축복을 간구하는 목자의 기도가 강단에서 각각의 성도들께 막힘없이 전달되게 하시고, 부교역자 뿐만 아니라 장로님, 교구장님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게 하소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하소서!

◉ 삼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0. 주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고, 가까운 이웃,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그런 자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 마 5:43~47 “43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11. 주여! 성전은 주님의 몸이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임을 믿습니다. 지상에서 신적기관이요,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제 2의 어머니 뱃속 같은 소중한 교회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 엡 1:22~23 “22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12. 주여!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위정자들과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교포들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인재를 키워서 파송함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계 22:20~21 "[20]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내 평생의 기도

◉ 딤후 4: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1. 주여! 우리 가족 3대가 주님을 섬기며,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데 쓰임 받는,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생육, 번성, 충만한 아브라함의 복(sonship)을 허락하소서!

2. 주여! 주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강한 자 되게 하시고, 절대 긍정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으로 큰 믿음의 그릇되게 하소서!

3. 주여! 성경을 잘 배우고 익혀,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여 12명의 제자를 파송케 하소서!

4. 주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된 주님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일생동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5. 주여!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삼아 삶을 연주하며,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소서!

6. 주여! 성실하고 근면한 농부처럼, 생명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는 열정을 허락하소서!

7. 주여!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어서 선한 감동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의 복(kingship)을 허락하소서!

8. 주여! 주님이 주실 영광과 승리, 의와 축복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게 하소서!

9. 주여!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 예지력을 주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생명을 전달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10. 주여! 세속적인 힘이나 물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의지 하는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11. 주여! 범사에 감사하며 비젼과 축복의 통로자로,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한평생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신부 되게 하소서!

12. 주여! 성령 충만하여 민족 복음화와 온전한 조국의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 순교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팔복기도문

축복의 산에 오르게 하소서!

◉ 시 1:1~2 "[1]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1. 주여! 성경적인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행복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너무나 주리고 목말라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3. 주여!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요,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간절함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 고후 1: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주여!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온유할 수 없사오니, 모세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주님을 닮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5. 주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처럼 오직 의의 근원이며 의의 본질이시며,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 롬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6. 주여!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 출 33: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7. 주여! 청결한 마음이란 “잡것이 섞이지 않은 것, 물을 섞지 않은 포도주, 찌꺼기가 끼지 않은 금”이라 했사오니, 순수하고 깨끗하며 정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시 24:3~4 “[3]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8. 주여! 화평의 직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히 13:20)을 만나고,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며, (갈 5:22)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 히 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9. 주여! 마음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지상의 천국, 심령의 천국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복이 내세의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오니 심령 천국을 누리다 영원한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 요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0. 주여! 성경의 모든 행복이 인격적인 복이요, 영적인 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 마 6:25~26 “25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

이 모든 말씀을 본질의 복과 행복을 함께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제 1 일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정체성 (Identity)를 분명히 하라!

주제 :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예언의 성취인 신약 성경이 증명한다.

◉ 롬 1:1~2 "[1]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종 곧 노예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곧 **"보냄 받은 자"**란 예수님이 전권을 그에게 위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종처럼 미천한 모습으로 살지만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을 그대로 위임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실 때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사49:4;렘1:5).

사실 바울은 높은 지위에서 종이나 다름없는 자리로 추락한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런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거짓교사가 아님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서술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예언된 분이며(2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3절) 분입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보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이라고 언급합니다(4절).

결국 복음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선포입니다.

복음은 심오한 철학이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밝힙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기에,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며, 로마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공통의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5~6절).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7절). 이처럼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일진대, 한 교회에 속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래 한 형제자매입니다. 복음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필사'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늘의 복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8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위력을 믿으라!

주제 : 우리는 예수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비록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 왔다고 밝힙니다(8~9절).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견고하게 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즉 그곳에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말입니다(10~11절). 여기서 이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의미로 오해하지 않도록 바울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안위를 얻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12절)

바울은 뛰어난 학식과 사도의 권위를 지녔으면서도 혼자 가르치려 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배우는 시간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는 각지의 교회를 방문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로부터 안위를 얻지 못했다면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섬기기만 하는 것도,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미 상당히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15:17~23). 특히 바울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계속 꿈꾸고 시도했습니다.(13절).

그렇게 한 이유는, 당대의 철학으로 교육을 받은 헬라인이나 어리석다고 취급당했던, 헬라인 이외의 사람 모두에게 자기가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뜻을 품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계속 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졌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방인들 덕분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 생명을 이방인 선교에 바치려 한 것입니다(15절). 우리는 이처럼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혹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감수하는 일이었고, 특히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16절).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복음의 핵심부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뜻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율법 조문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며 율법 학자라는 모든 지위와 과거의 정체성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바쳐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살 수는 없더라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말씀을 온전히 알고, 더욱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은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주제 : 성도는 멸망의 길로 행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달리 영생의 거룩한 길로 행해야 한다.

◉ 롬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지만(시103:8),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신 6:15, 나1:2)

그러면 어느 때에 진노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에 진노하셨으나,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때는,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죄의 길로 나아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심판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가 있고 축복의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롬1:21~23)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감사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 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주제 : 성도는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는 어리석은 자들과 달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 롬 1: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범죄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롬1:18)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역하고 고의로 죄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도전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롬1:18~23)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죄들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롬 1:24)"

사람들은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지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수치와 저주가 있고, 심판과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고 복 받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회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만나기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갈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의 축복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능력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제 5 일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심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제 :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 받을 자임을 기억하고 타인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 마귀도 아니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나 봉사, 구제나 헌금, 총성이나 헌신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나 자신입니다.(롬7:21,22)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우리가 쉽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잘못된 내 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롬2:1)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이요,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 회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롬2:5) 이것은 고집이요, 독선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아 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죄입니다.(롬2:9)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엡2:10) 말과 입으로는 선행을 쉽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선한 일 앞에서는 외면을 하거나 인색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약4:17)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도무지 스스로 회개 할 줄 모르는 마음과 선한 일에 인색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거룩한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제 자신이 영혼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소서!
성경 말씀의 갑옷을 입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주제 :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 **롬 2:12~23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법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편애가 없듯이(마5:45), 하나님의 심판에도 편견이 없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롬2:14),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의 행위를 대신하게 됩니다.(롬2:15)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심을 따라 심판 하실 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그 누구도 양심의 기준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한계입니다.(롬5:12)

또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2:12)"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듣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행해야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롬2:13)

오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고는 있으나,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롬 3:20)

이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롬1:16) 오직 복음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받아 드리고,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의 시작은 저의 작은 필요를 따라 이기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 - 롬 1:18~25

Focus /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음대로 살도록 인간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한 예화

1475년 토스카나 지방의 카프레세에서 태어난 미켈란젤로는 <다비드>, <최후의 심판>, <천지 창조>, <피에타>등 세계적인 작품을 만든 천재적인 작가였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의 성 베드로 대성당은 그의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순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의 작품 중 <천지 창조>라는 위대한 작품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교황 율리오 2세로부터 성당의 천장을 칠할 권한을 부여받아, 허리를 다치고 시력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며 천장화를 그려 마침내 37세의 나이에 그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가 르네상스 시대의 꽃을 피운 미켈란젤로의 작품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그리는 모습을 실제로 보지 않도록 어떻게 그의 작품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작품 안에는 작가의 이름과 그의 손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목도하지 않았더라도 작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어떻게 자연 만물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배경 이해하기

사도바울은 전세계를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 로마인들 앞에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에 대해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국가 대부분을 복속시킨, 고도로 문명화된 나라였습니다. 이 같은 로마 제국인들에게 속국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복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치스럽고 화려한 문화에 눈이 익은 로마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각한 상황을 현미경처럼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the total depravity)의 본성을 18~32절에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까닭은,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 없는 죄의 실상을 발견하기 전까지 만물 안에 계시된 참된 복음의 능력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신칭의(以信得義)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인간의 죄성을 1:18~3:20에서 순차적으로 밝힙니다. 몸이 아픈 환자가 의사 앞에서 검진을 받듯이, 죄인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자기 영혼의 상태를 이해해야만 영혼을 잠식한 병을 치유하고 복음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과 묵상 ① -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역설하나요? (19~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피조물 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 안에, 곧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17절) 그러나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한 행동들에 의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상반되는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한 그분의 반응'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 지금 진노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18절) 불경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께 불순종하는 태도와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는 의에서 벗어난 사악하고 무법한 행동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는 궁극적 이유는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경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피조 세계에서 볼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적용과 나눔 -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이성 중심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과 믿음의 세계입니다. 두 세계는 대립적이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나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해당합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 인간은 눈에 보이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며 믿음의 세계를 무시하거나 이성의 세계에서 분리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더러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기나 우둔한 자라고 말합니다.(22절)

이들이 그릇되게 행동하는 이유는 인간이 이성의 세계를 우상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두려 하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에 보이는 세계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사 6:9~10).

예수님도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나 눈멀지 않은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는 역설을 말씀하십니다(요 9장).

관찰과 묵상 ② - 하나님을 알되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나요?(21~25절)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와 육체적 타락에 빠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18절 이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 알 수 있음에도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아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허무하고 지각없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영과 혼과 육이 타락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과 믿음의 세계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21~22절), 영적 타락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23, 25절). 그리고 인간의 우상숭배(탐심)는 비도적적이고 육체적인 타락으로 귀결됩니다(24절, 골 3:5).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은 포기하심으로 결국 심판의 진노에 이르게 하십니다.

적용과 나눔 – 하나님을 떠난다면 자신 혹은 사회가 어떤 죄악에 침식당할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 종교적, 육체적으로 타락하며, 상실감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극도의 공허감과 무의미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영혼, 믿음, 절대적 사랑의 세계를 거부하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을 쫓습니다. 중독, 쾌락, 성적 타락, 탐욕, 물질, 성공, 헛된 이념과 사상, 지식 등 대체재를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포장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팀 켈러의 말처럼 '나를 만든 신'을 찾지 않고 '내가 만든 신'을 추구하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내면에 숨어 있던 죄악이 때가 되면 봇물처럼 터져 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을 누립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에 그분의 신성과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 질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 받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섭이라 착각해 죄의 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1)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고난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갈 수 있고,
광야라는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절망이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7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의 죄악을 보라

주제 :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 **롬 2:28~29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빗대어서 이르는 말로써,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2:28,29)라는 말씀은 천국을 사모하며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며 조롱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며,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요?(롬2:20,21)

믿는 이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롬2:23)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은 성찰함이 없을 때,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외형적이고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것이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요, 병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외형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형식과 자기 속에 매몰 되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표면적인 형식주의를 벗어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행(信行)이 일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임을 알고 기도하게 하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4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제 :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 **롬 3:4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영적 기득권을 부인한다고 여겨 반발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 받은데 큰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구약성경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1~2절).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언약은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3~4절)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에 비해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며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모태신앙'**에 빗대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더 크고, 혹 믿음이 흔들려도 돌이키기 쉬운 환경에 있으니 모태 신앙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을 오해해 하나님이 자기들만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영적 교만을 무너뜨리는 진리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5~8절)

유대인들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다는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시다는 바울의 주장을 비꼬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바울은 7~8절에서도 자신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유대인들의 반문을 언급합니다.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 거짓말에 대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는 바울의 말을 철저히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장이 말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반문을 던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주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왜곡시켜 그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위험인물로 몰아가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자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다가 결국 오해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들에 비해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하는 이 시간, 제 영을 깨워주시고,
깊은 임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주제 :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 롬 3:10~12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진단이 필요하고 진단에 따른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인간의 삶에는 많은 고통이 있는가?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알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며, 이를 이해하고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롬3:9,10)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렘17:9)"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요일1:10)"

이것이 인간 실존에 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인간이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6:23),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오늘의 말씀

죄의 댓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입니다.(계21:8) 이것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4)

인간의 모든 문제와 불행들이 죄로 인함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염려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가?

주제 :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 롬 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예절 바른 사람이 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 개선이 아니라, 소속과 신분의 변화, 즉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롬3:24)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노와 저주의 자리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1:12, 롬8:15)

의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롭다함)를 갖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다만 죄를 깨닫는 것 뿐입니다.(롬3:20)

일반적인 경우는 양심대로 사는 것입니다.(롬 2:15) 정직하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렘 17:9)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롬3:24)

오늘의 말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자 가운데에 있지만,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롬3:28)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목제물(십자가의 죽음)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롬3:25)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 하노라”(롬3:28)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기도와 절대적인 응답에
절대적인 감사로 응답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

주제 :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 롬 4:2~3 "만일 아브라함이 행의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모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이웃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롬8:15)

복음의 본질은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에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났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롬3:24)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한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음과 확신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믿음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근거는 은혜이고, 믿음은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엡2:8) 구원의 원인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해 놓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서 의인으로 여겨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한 의의 옷을 받아 입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마 22:13)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엡2:8)

그렇기에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9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례의 함정과 하나님의 구원

주제 : 성도는 신앙적 우월의식을 버리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 롬 4: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교육학 용어에 '역할 모델(Role mode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정해 그 사람을 표상으로 하여 성숙할 때까지 모델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성숙을 위해 역할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역할 모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능력,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를 보셨습니다.(막9:23)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히11:6),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마15:28),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눅5:11)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롬4:16)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 은혜이고, 듣고 순종한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라할 때에 갔고(창12:1,2), 내쫓으라할 때에 내쫓았고(창21:10), 드리라할 때에 순종하여 드렸습니다.(창22:2)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롬4:17)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갈3:9)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오늘 기도의 자리에 주의 영광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 안에 새롭고, 놀라운 계획을 행하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이신칭의와 아브라함의 믿음 - 롬 4:9~17

Focus /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말씀을 위한 예화

고든 맥도널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만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처럼 사실 기독교와 여타 종교는 행위 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아 표면상으로는 일반인들이 자세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 자비, 선한 행실, 도덕과 인간 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어 행위에 근거해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진리가 있는데, 기독교는 구원의 측면에서 행위의 종교, 수양의 종교, 선행의 종교라기보다 은혜의 종교에 훨씬 가깝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신의 호의와 은혜로 값없이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선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조건 없이 나를 받아 주고 사랑해줌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란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아가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 이해하기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신칭의(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 받음)의 복음을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계시 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3장에서 이신칭의의 의미를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이신칭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을 지님으로 이루어지기에 인간의 자랑을 배제합니다.(3:27~28)

둘째,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이방인에게도 이신칭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3:29~30)
셋째, 이신칭의의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합니다.(3:31)

율법이 고발하는 인간의 거짓됨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에서 구원할 자는 복음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은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신칭의의 사례로 들며 3장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이를 입증하면 율법을 파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과 묵상 ① - 아브라함은 어느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나요? (9~10절, 창 15:6, 17:24)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의(以信得義)의 실례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할례를 말합니다. 왜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할례를 언급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이나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복과 구원이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때는 할례를 받은 이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창15:6) 이는 아브라함의 이신칭의가 인간의 행위나 자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그는 할례를 받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건은 그가 믿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며, 동시에 의롭다 인정받은 후 할례받은 사건은 그가 유대인의 조상도 됨을 논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의를 확인해 주는 표시, 도장의 기능을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은 바울의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적용과 나눔 -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보다 행위(공로)를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신칭의 구원에는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칭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과 다르게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후에는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하고, 죄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구원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성화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의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안에는 복음을 잘 믿고 순종하던 자들이 한순간에 복음을 변질시켜, 이신칭의가 아닌 이행칭의(행위로 구원받음)를 주장해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외적인 자랑이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 ②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어떤 이유로 주어졌나요?(11~13절)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나요?(16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율법의 속한 자' 뿐 아니라 '믿음의 속한 자'(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은혜를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후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칭의의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게됨'이 할례와 무관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13절)는 약속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 곧 아브라함이 열국의 조상이 되고 땅을 소유하게 되며,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창 15:4~6, 17:2~8)

아브라함의 칭의는 믿음을 통해 얻어졌습니다.(11절) 약속된 상속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분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즉 율법을 가진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에게까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적용과 나눔 – 내 인생에서 믿음의 변환점이 된 말씀이나 사건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율법이 완전하고 선하다 해도 인간에게는 그것을 완전히 준수하고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며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장해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창 12장)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장거리 여행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단번에 성장하지 않고, 인생의 굴곡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4:17~20)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어두운 현실을 만나더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1:17)을 기억하며, 결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다지기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기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때는 그가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무할례자로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믿음의 의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합니다.

성도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음을 감사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택하셔서 믿음의 반열에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의의 근거로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원합니다. 제 의와 삶의 이유 되신 주님만 믿고 따르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롬 4:11)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많음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제 :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예해야 한다.

◉ **롬 4:19~22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은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따라 믿음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6:3)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조명해 보십시다.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롬4:17)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롬4:18)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롬4:19),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롬4:21)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그의 믿음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장부로 성장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제16일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의로운 사람이 받는 축복

주제 : 하나님은 환란 중에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신다.

◉ **롬 5:1~2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 거워하느니라"**

말틴 루터(Martin Luther)는 믿음에 대해 정의하기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른 관계란, 의의 관계요, 화평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의로워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 다른 것은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5:1)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화평을 즐기자'라는 말씀입니다. 화평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합니다. 물질도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니라 가진 물질을 내가 즐겨야 내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즐기는 것,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 하고서야 주어진 것입니다.(롬5:8,10)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롬5:2,4)

오늘의 말씀

환난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무거울지라도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금 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행복한 시간도, 고통의 날도 돌아보면 다 은혜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

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주제 : 하나님은 죄인을 둘째 아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 **롬 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며, 따라서 그의 범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지만, 성경은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합니다.

곧 죽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전하고 영원히 정복될 마지막 원수라는 것입니다.(고전 15:26)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망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으로 존재합니다.

아담이 **'오실 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14절의 표현은, 모든 자가 육체적으로는 아담에게 속하지만,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나,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크고도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인 인간은 죽음의 압제 아래 두려워하고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선언합니다. 죽음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께서 한 일의 결과를 확연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행한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 넘치는 은혜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어짐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은 세상을 삼켜 버린 죄악의 대홍수를 물리쳤고, 그 결과 예수를 믿어 그분께 속한 자들은 모두 의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사람들을 압제하며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생명 안에서 오히려 왕노릇 합니다.

또한 바울은 무수한 죄가 범해졌어도 구속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더욱 풍성하고 위대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죄와 사망을 극복했으며, 은혜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아담이 불러온 결과를 다 상쇄시키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떠한 죄라도 다 덮을 정도로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미래에 대하여 큰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영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극적 반전을 맞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겪어야 했던 절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그의 십자가로 끊어 버리시고, 생명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늘 제 안에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모하는 이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
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
이로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
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
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주제 :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죄에 지배 받지 않는다.

◉ 롬 6:6~7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이며, 우리가 세례를 받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롬6:3)

세례는 "잠근다"는 의미로써, 물속에 완전히 잠기어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6:11)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2:20)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함이니”(롬6:6)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죽음은 예수를 믿기 전, 죄에 매여 살던 옛사람을 죽이고, 죄에 매력을 느끼며 살던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갈5:2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은 부활을 보증하는 죽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6:8)

살아날 것을 믿고 죽는 죽음이라야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 하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롬6:11)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산 자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앞에는 항상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매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 나의 존재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제 마음의 밭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

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크리스찬의 신분과 삶

주제 :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참된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 롬 6: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던지 그 손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나를 주장하고 내게 왕노릇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섬기는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자존심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처럼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 결국은 그 섬기는 것의 종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주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무엇인가에 순종할 때 그것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끄는대로 끌려 가게 됩니다.(롬6:16)

그러면 죄가 우리의 주인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롬6:14)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사단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둘,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롬6:16) 그러므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롬6:13)
셋,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롬8:12) 예수 밖에 있으면 죄에게 종 노릇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말씀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삼고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도 유익하다

주제 :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다.

◉ 롬 7:5~6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M.R. 디한 박사(De Haan)는 그의 저서 “율법이냐 은혜냐”(생명의 말씀사)라는 책에서 율법과 은혜는 둘 다 완전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율법과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1)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
2) 율법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 말하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말한다.
3) 율법은 죄의 값을 갚으라고 말하나, 은혜는 이미 죄의 값은 지불했다고 한다.
4)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한다.
5) 율법은 돌판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하였다.
6)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7) 율법은 복종을 강조하지만, 은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이요 저주를 받는 자였으나, 은혜 안에서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갈3:13)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 되었습니다.(롬8:1,2)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깨달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갈3:24) 율법의 심오한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밝히시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셨습니다.(마5:17) 율법은 복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새롭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성결한 생활에 힘쓰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행복이 충만하여 행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 롬 6:12~23

Focus /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위한 예화

'엥겔 지수'는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생계비의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엥겔 계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합니다.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일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엥겔 계수도 이와 같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덜 경건한 사람입니다. 반면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원한다면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기나 명예가 짓밟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좇아 행동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과 어느 정도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배경 이해하기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즉 이신칭의를 통해 얻습니다. 이신칭의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기본 주제이자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즉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그 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로, 의로우신 하나님만 선언하실 수 있는 죄 용서의 사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은 성도는 '칭의'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의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이 연합이 세례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6:1~8) 세례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화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 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는 자신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12~13절)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청되는 첫 번째는 주종 관계의 분명한 확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6절)
하지만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하는 성도의 의지적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12절) 따라서 성도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히 12:4)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유일한 주인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의 분명한 발견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13절). '불의의 무기로 내준다'는 것은 '죄에 내맡기어 악의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13절).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12:1).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 할 때 어떤 점이 어렵나요?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신학자 존 머리(J. Murray)는 "아직 풀려나지 않는 노예에게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노예 됨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 받은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은 할 수 없는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 충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황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더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의롭다 칭함 받은 성도는 자신의 의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은혜의 포로가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도에게 거룩한 삶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삶입니다.

관찰과 묵상 ② - 죄의 종일 때는 어떤 열매를 맺나요?
또 하나님의 종일 때는 어떤 열매를 맺나요? (20~23절)

죄의 종일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하는 데는 세 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17절), 즉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10:17).

두 번째 단계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17절), 즉 들은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 합니다(10:10).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마 7:21)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17절). 순종은 의지적 결단이며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바울은 곧 지, 정, 의,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지), '마음'(정), '순종'(의),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혀야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계속되는 인생 여정 가운데 요청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삶이며, 거룩한 삶의 열매는 영생입니다.(22~23)

적용과 나눔 –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참된 종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할지 나누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된 성도는 첫째,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다른 어떤 것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출 20:3).

예수님도 '한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24).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분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며, 자신의 경험이 맞다며, 자신의 주장을 주인의 뜻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따르는 것이 종이 할 올바른 일입니다.

셋째,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전 4:2).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은 일상의 성실함에서 시작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삶은 하나님의 종 된 성도가 걸을 마땅한 길입니다.

말씀 다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성도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하는 삶의 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는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영생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린 종이 받는 선물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에 새기기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소서!
마귀 사탄보다 더 힘이 드는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

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제 : 성도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하며, 주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 롬 7:19~20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갈등의 폭은 더욱 커지고 넓어집니다. 사람의 갈등을 살펴보면 생물학적 갈등, 안전에 관한 갈등, 소속에 관한 갈등, 자기 판단의 갈등, 성취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 더 영적인 갈등이 크고 무겁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 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롬7:15)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내가 다른, 갈등의 모순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소원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갈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롬7:17)

“내 속에 거하는 죄”, 즉,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이 나를 무력화 시키고 나를 악한 자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노력도 해 보고 발버둥도 쳐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패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롬7:22~23)

“사로잡는다”는 말은 ‘생포한다, 포로로 잡는다’는 의미로 사용 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고 내 속에서 다른 한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악한 길로 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7:25)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결심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하고 성공해서 겸손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많고 부족하고 사악한 나를 꺾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임을 깨닫게 하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
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
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주시는 기적

주제 :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도의 삶은 성화 되어진다.

◉ 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1)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롬 1:18)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10,23), 이런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는 이 선언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겨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죄를 당할 일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할 법조문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놀라운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고후5:1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2)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율법)이었는데, 그 법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혜)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효력이 가능한 법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원은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입니다.(엡2: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약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갈2:20)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계3:20)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의 축복을 간증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기도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
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의 특권과 의무를 생각하라

주제 : 성령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

◉ **롬 8:12~14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롬8:12)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져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함도, 부르심도, 의롭다 함도, 자녀됨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다 거져 받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진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길일까요?

하나,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먼저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롬1:14,15)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막16:15),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딤후4:2)

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라"(롬8:12,13)

오늘의 말씀

우리는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롬8:14)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롬14:8),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는 것(고전10:31)이 빚진 자의 삶입니다.

셋,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예 해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8:17)

자녀는 아버지의 신분 그대로 양반이면 양반, 귀족이면 귀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을 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상속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가문의 가풍을 이어받아야 하고 가문을 영광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예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에도 참예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롬8:15) 이제 큰 빛 진자가 되어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 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벧전2:9),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규칙적인 기도로 믿음을 비축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규칙적인 기도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주제 :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소망과 인내의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 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는 주님을 믿는 일평생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이므로 악한 마귀에 대항하며 살다 보면 자주 시련과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릇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의 삶은 세상을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따르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당신의 고난을 체화하려고 성도를 사랑하고 도우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의 피조물이 내뱉는 탄식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성령의 열매인 몸의 속량,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몸을 받을 때까지는 내적으로 탄식하며 기다립니다.(23절). 이 세상이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이유는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피조물은 저주를 받아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22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는 날에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21절)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기다림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속량될 때까지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기다리며 소망해야 합니다.(24~25절)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속량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오직 인내하며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초대교회의 성도와 동일합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우리 역시 속량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보다 잘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십시오. 어떤 고난도 영광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한때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던 둘로스라는 선교선이 있었습니다.

350명의 선교사들을 태우고 선교하던 배입니다. 한번은 필리핀 잠보앙가라는 곳에서 배가 정박하여 선교사들이 내려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 회교도 청년이 수류탄을 던져 선교사 두 명이 즉사하고 32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죽은 선교사 중 한 사람은 18세의 스웨덴 여성이었고, 또 한 명은 19세의 뉴질랜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배에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들이 이처럼 대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과 영광을 비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며 여러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하늘의 영광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소서!
축복의 언어로, 형통의 미래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맏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주제 :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케 하는 복을 주신다.

◉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손길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 받은 성도의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은 넓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1)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2) 구원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3)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건강이나 질병, 성공이나 실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요3:16)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신앙에 이르려면,

첫째,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롬8:26) 성령의 감화와 도우심이 없이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확신입니다.(롬8:27)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된다는 믿음입니다.(롬8:28)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이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롬8:30)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부족한 종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생이라는 홍해 앞에서 물을 마르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과 승리의 확신

주제 :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 **롬 8:31~32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압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장차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깊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격해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8:31)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일이란 의식주의 문제요, 의에 대한 문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1)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먹고 입고 거주하고 살아야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선결될 과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롬8:32)

이 말씀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크고 귀한 것을 주셨듯이 작고 소소한 모든 것도 다 주십니다.

2) 내가 죄인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죄인이요, 현재에도 죄인이며, 앞으로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롬8:33)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롬8:1)

3)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앞날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 곤고한 일이나 핍박, 그리고 기근이나 질병,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8:35,37)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주사 의롭다 하시고, 든든한 사랑의 끈으로 매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보해 주십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기도하면 나를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 롬 8:31~39

Focus /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승리의 자리로 이끕니다.

말씀을 위한 예화

2008년 5월 12일, 중국의 쓰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공식적인 피해 규모는 사망자 약 69,000명, 부상자 약 374,000명, 행방불명자 약 18,000명, 재산 피해자 누계 약 4,616만 명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인명 구조 과정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수십 톤의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던 위만만 씨가 발견됐습니다. 몸을 웅크린 그녀의 품 안에는 젖을 먹다 잠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호흡은 이미 끊겨 있었고, 아이와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는 문자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쏟아지는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막아 아이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배경 이해하기

독일의 신학자 필리프 슈페너(P.J.Spener)는 로마서 8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만일 성서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중심부의 정점이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 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영화로움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도가 온전히 성화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영화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환희의 찬양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칭의, 성화, 영화의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에서 심각한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내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견인이 성도를 구원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근원적이고도 확실한 근거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관찰과 묵상 ① -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1~34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바울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전합니다.

첫째,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성도가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32절) 둘째, 의로우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도의 의로움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33절). 셋째 하나님과 성도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변호하고 간구하시기 때문에(34절) 아무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이유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기에, 바울은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옮기도록 권면합니다.

적용과 나눔 – 일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다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힘을 얻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영화나 스포츠 중계방송을 처음 볼 때는 결과를 몰라 긴장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고 볼 때는 긴장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에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선포합니다. 성도가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일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시 118:6~7)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에 패배는 결코 없습니다.

관찰과 묵상 ② - 바울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확언하나요?(35~39절)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35~39절은 '사랑의 찬가' 또는 '환희의 찬가'라는 별명을 지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는 어쩌다가 운 좋게 간신히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입니다(37절).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구원과 승리의 절대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35절).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겪은 어려움(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고통과 고난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둘째,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체험함으로 확신 가운데 서야 합니다. 바울이 겪은 어려움은 그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한 존재가 됨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모든 어려움과 근심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과 나눔 – 나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언제 경험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의 삶은 평탄하고 안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중에 큰 시련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게 맞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결코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건져 주시며 지켜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4:18)

말씀 다지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구원은 보장받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의지하면 고난과 박해와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푯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승리는 넉넉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보잘 것 없는 죄인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믿고 신뢰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약속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주제 :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는 참된 행실로 믿음을 증명한다.

◉ **롬 9:1~3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所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고, 가정적으로 바라는 바가 있으며, 공동체나 국가적으로 기대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거나 어떤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믿음이 조상들로부터 전해졌으며, 구원의 주이신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저들은 예수를 배척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자기의 동족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롬9:1~3)

여기에서 '저주'란 단순한 물리적인 손실이나 손해 정도가 아니라, 천벌(天罰)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과 육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형벌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까지도 받아 드리는 절실함이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다른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지라도 나만 구원 받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나만 편하고 무사하겠다는 것,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망하더라도 '나만'이라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열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와 친척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때문에 심한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들만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불신 가족이나 친척과 이웃, 불신의 동족에 대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불타는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전도인의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겸허한 성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
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
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
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
느냐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
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
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
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
리요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
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라!

주제 :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위대하다.

◉ 롬 9:15~16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사43:1, 요15:16)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롬8:30)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냐 하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롬9:13)

정말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여기고, 또 불의한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각 사람에 대한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납득할만한 어떤 근거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롬9:14)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어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롬9:15)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 아니심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 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시145:17)라고 믿는 것을 우리 신앙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롬9:20,21)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 한 덩이 진흙이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우리의 입장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받은 입장에서는 은혜입니다.

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요3:15)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약1:17)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미천하고 죄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믿고, 누리고, 전파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25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함이 아닌 믿음이다

주제 :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 롬 9:27~28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란 무엇인가? 남은 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았을 질문입니다.

남은 자(remnant)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전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어 가는 중에, 인간의 범죄와 패역함을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남겨 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속의 역사를 이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롬9:27)

성경은 이 남은 자를 그루터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6:13)

그루터기란 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남은 것을 말합니다. 사실 남은 자들도 죄로 인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남겨 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흉년이 들어도 종자만은 남겨 두어 다음 수확을 기대하는 것처럼, 다 함께 멸망을 받아야할 죄인들이지만 선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남겨 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남은 자가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남겼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다 멸망을 당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 하시려고 나를 남은 자로 구속 하셨음을 아는 것이 은혜로운 자기 인식입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롬9:30)

의에는 쫓는 의가 있고 얻는 의가 있습니다. 의를 쫓는 유대인들은 지기의 의를 쫓다가 버림을 당하였고,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얻었습니다.(롬9:30~32)

유대인이 쫓은 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맺은 계약(율법)에 의한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행위로 얻는 의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롬3:20)

오직 부딪치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 드리고 남은 자의 사명 가지고 구원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는 영적인 심호흡이며, 영적인 재충전이오니
호흡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 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주제 :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롬 10:2~4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많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은 소수만이 믿음을 가지는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롬10:2)

잘못된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졌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을 낼수록 본래의 목표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열심은 올바른 지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동반하지 않은 열심은 병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에, 예수를 믿지를 않았고 배척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롬10:3)

이스라엘은 자기(율법)의 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예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율법의 마침입니다.(롬10: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고,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에는 반드시 구비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1)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롬10:9b)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 예수를 주로 시인 해야합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롬10:9a),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b)

주(主)라는 말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주(LORD)라고 시인 한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또 입으로 시인 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구원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낙심치 않고
한 번 더 기도하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제 :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신다.

◉ 롬 10:13~15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부르며,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1) 지금까지 고집해 왔던 자기라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고 말씀 하셨습니다. 옛 신이었던 '나'라는 정욕의 우상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습니다.(갈5:24)

2) 자기를 부정 해야합니다. 그릇에 음식물을 담으려 할 때, 우선 그릇을 깨끗이 닦고 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깨끗이 닦아내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나를 따를 것이니라"(마16:24)

3)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회개도 하고 옛 생활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롬10:17)

예수를 믿으려면 두 가지 역사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화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함께 협력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지 이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4)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땅도 중요하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효과적인 전달 수단(언어)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10:15a)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내고 보냄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고자 하는 자에게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알게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b)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롬10:13) 부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롬10:17)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내리며, 응답의 문도 열리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
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
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
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남은 자

주제 : 성도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 롬 1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장차 이스라엘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복음으로 넘어졌으며,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롬11:7)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 약속된 메시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 전부터 메시야의 약속을 받았고 또 그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요1:45)

2) 약속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메시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메시야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구했기 때문입니다.(행1:6)

저들이 구해 온 것을 얻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지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롬10:2) 이스라엘은 자신을 정죄하는 육신의 의만 알았지,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완전한 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11:7b) 택하심을 입은 자란,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택하심을 입은 자란,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약속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3:29)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롬11:11)

지금 이스라엘이 강팍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감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을 볼 때,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민족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조상들과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수 천년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종국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지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오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는 영적인 저축이기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 - 롬 12:1~8

Focus / 믿음으로 의인 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말씀을 위한 예화

한 중국인이 작은 철 조각을 붙인 나뭇잎을 물에 띄워 놓고 지켜보는 일을 되풀이합니다. 나뭇잎이 빙빙 돌다가 매번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은 최초의 항해 도구인 나침반이 이렇게 해서 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길 떠나는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지형지물을 보면서 진로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철 조각에 영향을 주는 원인인 지구의 자기장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뭇잎에 놓인 철 조각에 자연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인 남북 개념도 몰랐고, 작은 철 조각 하나가 매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하는 선원과 여행자 들이 나침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 두신 나침반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침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배경 이해하기

바울은 로마서 1~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왜곡한 유대교 신자 혹은 유대주의자 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세계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와 연합할 때 어떻게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6:4).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요구했습니다(6:13).

12장 이후부터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구체적 삶의 모습을 전합니다. 특히 12장 1~2절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윤리적 삶의 원리가 됩니다. 바울은 이방 문화에서 노출된 로마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세계관을 따르지 말고 성령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어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관찰과 묵상 ① -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1~2절)

영적 예배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비결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지식, 감정, 의지, 마음, 소유, 능력, 꿈 등을 담은 전체입니다. 따라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영, 혼, 육을 포함한 인간 전체 즉, 전 존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살아 있는 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제사기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제물이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바울의 권면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드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리스테미'는 '맡기다, 바치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는 비결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사회 규범과 제도에 의해 말과 행동에 제약받는 존재지만, 그 영향력 아래 놓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속사람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의 통치 기재인 마음이 새로워져야 가능합니다(잠4:23).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예수님이 거하실 뿐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적용과 나눔 -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풍조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구원과 더불어 성화의 삶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성화의 삶)을 살도록 바울이 강조한 것은 ‘연합의 원리’(6:3~8)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6:8)라는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이전까지 고수하던 내 삶의 목적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6:6) 세상도 죽고, 세상을 사랑한 나도 죽습니다(갈6:14). 이 말은 세상이라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 의해 다스림 받는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에 대해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세상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세상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인 사람은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그분의 영광이 됩니다(14:8~9). 그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순종을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분별의 시작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② -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8절)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위로), 구제, 지도(다스림),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카리스마)는 ‘거저 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이라는 뜻으로, 은혜(카리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라고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알려 주는 은사입니다. 장래의 일을 알려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일러 주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은사입니다.

‘섬김’은 봉사의 은사입니다.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교육하는 은사입니다. 교사들은 말씀을 해석해 주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권면(위로)’은 낙심한 성도, 갈팡질팡하는 성도, 위기를 맞은 성도,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때 강요나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눠 주는 은사입니다.

‘지도’(다스림)는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지도자의 은사입니다.

‘긍휼’은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 일은 자발적으로 하며,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용과 나눔 -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나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누어보세요.

공동체란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의 사람들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인간적인 배경도, 믿음의 정도와 색깔, 은사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인 몸이며,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의식입니다.

은사에는 날 때부터 지닌 자연적 은사와 자라면서 개발된 은사, 전혀 없었으나 받게 된 초자연적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이나 칭찬을 통해서입니다. 은사는 공동체 활동 중에 드러나고, 훈련으로 강화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6절). 따라서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서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은사는 자신의 자랑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8:28).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갈 5:22~23). 성령의 성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행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으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도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 되어 갑니다.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할 때 공동체는 믿음의 터 위에서 견고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 땅의 유익을 탐하던 눈을 들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해 행함으로 교회에는 덕을 끼치고, 세상에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도가 축복이요, 능력이요, 문제 해결의 답임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 받는 진리를 체험케 하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

주제 :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성화의 길로 가야한다.

◉ **롬 11:17~18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구원은 원래 참감람나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참감람나무 가지의 얼마간을 꺾으시고 돌감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들을 그 꺾이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롬11:17)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어져서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꺾여짐이 이방인의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꺾여짐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의 접붙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꺾여짐이 된 것은 저들의 불신앙에서 온 것이지만,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한고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니라"(롬11:20a)

참감람나무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그 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참감람나무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므로 구원의 줄기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롬4:16b)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롬11:20b)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롬11:21)
혈통적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방인들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하심과도 마찬가지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이어지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갈3:29)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에 속한 가지들로 하나님의 구원과 먼 거리에 있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시므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권적인 구원의 기적

주제 :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 롬 11:25~26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잘 되게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병을 고쳐주심을 믿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내가 죄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며 성숙한 믿음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롬11:29)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약1:17) 하나님은 한번 사랑을 시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중에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것이라"(롬11:25)

'이 신비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1)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롬11:25b)

이스라엘인 모두가 완악한 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더러는 안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으며, 이방인 가운데도 더러는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입니다.

3)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얼마 동안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우둔하게 된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11:26a)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3)

깊다는 말은 감탄사로써,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묻거나 상의해서 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간을 향하신 사랑을 감탄하고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랑을 받을만한 무엇이 있어서 사랑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부르심이요,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하루의 승리를 새벽 기도 시간에 얻게 하시고
인생과 영혼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지혜의 지팡이를
새벽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

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주제 :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롬 12:1a)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Therefore)'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앞에서의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로 달라지고 변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엡2:1) 죄로 인해 저주와 진노의 지식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롬8:15)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롬8:17)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롬12:1b)

제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짐승이나 곡식을 말합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정결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제물, 즉 생활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그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온전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2)

1)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세대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으로 되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물질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인간의 욕망을 만족하게 만드는 체계의 세대입니다.

2)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말과 행실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3)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b)
분별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가?(온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가?(선하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데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소서!
새벽은 인생의 미래임을 알고
하루의 종을 울리는 새벽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처럼 사랑하라

주제 :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 롬 12:1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사랑에 있음을 말하며 사랑의 반대가 바로 거짓과 악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은 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9절).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무런 차별 없이 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찾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식문화가 다르다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증하다고 여겼던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기는 무척 불편했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있는 것이 꺼려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서로 먼저 표현하라고 권면합니다(10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에 근거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섬기라 즉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이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라는 사실상 같은 의미의 말을 세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소망과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고, 항상 기도하며(12절), 공동체적으로는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손님을 대접하기에 힘쓰는 것이 예수님의 모범대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13절)

바울은 낮에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기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말씀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며 핍박했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 로마인들이 **"주는 오직 황제 가이사"**라며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기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질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박해와 싸워야 했고 내적으로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성도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능히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소리 내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확정하는
통성의 기도를 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

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주제 : 성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해야 한다.

◉ 롬 12:17~18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부딪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와 같은 좋은 이웃이요, 다른 하나는 원수와 같은 좋지 못한 이웃입니다.

좋지 못한 이웃과의 관계는 성숙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웃과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마18:18) 예수께서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5:24b)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라면 이웃과의 관계는 그 신앙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은 신앙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약2:17)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12:14)

'박해하는 자'란 괴롭히고 손해 끼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0a,12a)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면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합니다. 반드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아무것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롬 12:17)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은 언제든지 선한 일이 되도록 노력하고 모든 지혜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목적이라도 방법이 악하면 결국은 목적도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악한 방법으로 선한 결과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 선한 것이 되려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롬12:20)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다가는 결국은 내 자신도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랑할 때에만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12:18)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고 어떤 희생이나 손해 되는 일이 있더라도 감내하며 화목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화해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막힌 담을 헐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였으며, 나와 내 양심이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불화와 원수됨의 담을 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화목의 삶을 힘쓰는 천국 백성이 되십시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영의 영역과 내면세계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세와 복종

주제 :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권세에 성도는 복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권세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주이십니다. 예수님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마10:29)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 '내 종'이라고 칭하셨고(렘25:9),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내 목자'라고 칭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사44:28)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권력을 위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권세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잠16:33).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면 우리 삶의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법을 세워 그 법에 의해 국민을 통치합니다.

만일 정부가 없고 법도 없다면 세상에는 온갖 범죄가 만연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폭력을 억제하고,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림으로 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 도구로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권세자들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법뿐 아니라 국가의 법을 잘 지켜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명하신 것처럼(마22:21),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로마 전부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제도를 통해 권력을 빼앗아 다른 세력에게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권세에 복종할 뿐 아니라 권세의 잘못에 질책을 가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예배의 장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영의 문을 열어 주시고, 임재의 문을 열어 주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그리스도인의 선택 기준 - 롬 14:1~12

Focus / 성도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행동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씀을 위한 예화

연예인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예배를 드릴 때면 여자 연예인들은 시커먼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눈물에 마스카라가 녹아내린 것입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연예인들이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런 고백을 올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개성 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명한 가수, 성우, 탤런트, 코미디언들이 성가대를 이루어 찬양하는 모습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가대는 완전히 무질서 자체였지만, 거룩한 합창이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던 연예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특별한 화답을 하곤 했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에 수긍하면 기립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옳소~!"

연예인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명MC 곽규석 씨의 의견을 물었을 때 "전도사님은 연예인들을 몰라요,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이 병들면 우리는 외면할 겁니다. 공부도 방해받을 것이고요"라고 만류했습니다.

나는 "어려운가 쉬운가를 제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연예인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곽규석 씨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로마서 12~15장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성도들이 실천하고 적용할 사항을 다룹니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12:1~2), 성도와의 관계(12:3~13), 사회적 관계(12:14~21), 국가 권세와의 관계(13:1~7), 이웃과의 관계(13:8~10), 그리고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13:11~14)가 그 내용입니다. 이 권면은 성도들이 지향할 삶의 태도를 원론적으로 짚어 준 것입니다.

이에 반해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은 당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가 당면한, 보다 실제적인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여러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자유의 절제'라는 방식을 따라 서로 용납하고 화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할 기준을 명확히 전합니다. 16장에서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인물들의 목록에서 보듯 로마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고,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로마교회가, 교회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관찰과 묵상 ① - 음식과 절기로 인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1~5절)

하나님이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모두를 받으셨고, 그들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들을 세우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양쪽 모두를 배제하지 않고 받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의 선배가 그들을 형제로서 따듯하게 환영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1, 3절).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일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형제가 열등감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다려주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고,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에 대한 권세와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주인 행세하는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배경이나 삶의 기준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나요?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어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공동체, 영적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가족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 갑니다. 가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납받습니다.

이 과정이 잘 지나면 서로 안정감과 친밀감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각과 생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 간 차이로 인해 문제도 발생하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며 단단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됩니다.

믿음의 선배는 먼저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교제하며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또 지체의 성장 과정 중 시행착오를 인내해야 합니다. 비판을 삼가며, 기다려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은 사람에 대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갖고 계신 것처럼, 다른 지체에게도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관찰과 묵상 ② - 바울은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 동기가 무엇이야 한다고 말하나요? (6~9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본질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주를 위하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나 음식 먹는 문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보다 자신의 행동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채소만 먹는 성도나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는 성도도,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성도나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성도나, 주님을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과 동기를 지닌 성도는 다른 관심이나 문화 배경을 지닌 성도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또는 개인 내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주의 것'(8절)이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속량)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대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 용어로, 흠 없는 동물이 대신 죽고 죄인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 용어로,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자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더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살려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적용과 나눔 -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어떤 유익을 주는지 나누어보세요.

성자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든 창조자이시며,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섭리자이십니다. 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창세기에는 최초의 죄가 나옵니다(창3:5). 죄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 시대 360년 혼란의 원인을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으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로 지낼 수 밖에 없습니다(엡2:2).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으로, 우리를 향한 소망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녀로 대우하십니다(8:15~17).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이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세를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믿어 의롭게 된 성도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말씀 다지기

믿음으로 의를 얻은 성도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함과 이로 인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 동기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님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 그분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과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 생각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습관을 회개합니다. 저와 지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신앙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롬 14:8)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중보기도가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간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나가게 하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의 날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

주제 : 성도는 세상에서 성별된 행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

◉ 롬 13: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재능이 있다고 해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이란 주어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시간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데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롬11:11a)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롬11:11b)

'구원이 가까웠음이라'는 말은 멸망의 시간이 가까워졌고,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바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롬11:12)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 시간을 보면서 그쪽을 향하여 갑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현재의 어둠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둠은 물리적인 시간상의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입니다. 죄로 어두어진 영혼이 어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머물러 삽니다.

2) 밤이 깊다는 것은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보고 빛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점점 어둠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자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입니다.

3)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합니다.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을 의식하고 빛 앞에서 사는 것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과 같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11:14)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고 예수를 닮아 살라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3,24)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야말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매우 가까운 시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난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는 말씀을 귀 담아 듣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 가십시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사람의 생각」「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심을 믿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라

주제 : 성도는 서로 비방함으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 롬 14: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믿게 된 계기도 다르며 신앙생활이나 생활방식도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차이 때문에 교인들 상호간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충돌도 있습니다. 또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에서는 일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앞세워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그러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롬14:1)

‘받는다’는 말은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웃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면, 상대방도 나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받아 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가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앞으로는 좋아지고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롬14:3b)

하나님이 먼저 옳다고 인정하셨는데 어찌 사람이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 눈에 좀 부족하고 거슬리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롬 14:4)

비판할 수 있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자인데 그 누가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눈에 거슬리는 일꾼이나 직분자가 있더라도 내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 목적은 하나이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은 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내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율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판단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같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비판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판단이나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알고, 덕스럽고 부드러운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 가십시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응답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화평을 만들고 덕을 세우라

주제 : 성도는 지식을 따를 뿐만 아니라,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 롬 14:18~19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공동체(교회) 안에서 항상 힘써야 할 일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화평의 일'이란 사랑에서 나온 이해와 용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롬5:1) 하나님과 화평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골1:20) 예수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가로막은 의문의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엡2:14,16)

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유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바르고 신실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을 '덕'이라고 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남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자기의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서로 간에 덕을 세우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조심할 것은,

1) 형제들 앞에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롬14:13)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2)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롬14:22b)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믿음에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판단에서 나온 결과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3)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 하는 것은 다 죄니라"(롬14:23b)

그리스도인의 생활표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롬10:17)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생각,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됨을 알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7)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을 만들고 덕을 세우는데 힘써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구원 받은 성도의 도리임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기쁨을 구하는 삶

주제 : 성도는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 **롬 15:12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힘써서 해야할 일은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덕이란 나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합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합창을 잘 하려면, 악보를 잘 보고 소화하는 독보력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지휘자의 지도를 잘 따르고 옆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으며 다른 성도들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15:1)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강한 자'란 힘이 있는 자, 능력있는 자를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강한 것을 말씀합니다. 참는 것도 강한 자가 참는 것이지, 약한 자는 참을 것이 없습니다.

아는 자가 덕을 세우기 위해 모르는 자처럼 보여질 때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15:1b)

남을 먼저 생각해야 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만 기쁘게 해서는 덕이 깨어지고 맙니다.

기쁘다는 것은 감정적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무슨 일은 감정대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감정 위에 지식이 있어야 하고 지식보다 더 중요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에 따라 행하고 의지의 결단으로 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롬 15:2)

덕은 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고 이웃의 기쁨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인격이라야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놓고서야 기뻐합니다. 부득이 한쪽만 기뻐해야 한다면 내가 양보를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 하셨나니 기록된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15:34)

덕을 세우는 일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역할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표본을 따라가면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롬15:4a)

성경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지혜를 얻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 덕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일것입니다. 마땅히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돌보아줌으로 화평을 이루고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표본과 성경 말씀을 따라 덕을 세우는데 힘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가십시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 주님의 종들과의 관계,
이웃에게 고통을 준 관계가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
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
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
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
노라

20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제사장 직분

주제 :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성도는 삶을 주님께 기쁨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

◉ **롬 15: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롬15:15)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행하여야 할 것들을 다 알고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나게 하려는 뜻에서 쓴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믿고, 알고, 행해야 할 것들을 수시로 상기하고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이며, 이는 신앙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만세 전에 택하심을 받은 것(엡1:3~6),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엡2:8),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사역에 참예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엡3:7,8)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롬15:16)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택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특별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는 것은 선택을 받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롬15:20)

이는 복음 전도의 이중적인 일을 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직도 이 땅 위에는 복음 전도의 미개척지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불신의 모든 자에게 속히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쓸 책임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 직분과 복음의 일이야말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이야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큼 귀한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에 힘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영적인 복을 먼저 받음으로 육적인 복은 덤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통로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22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3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
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제 :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 **롬 15:22~24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롬15:16)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비전이 생깁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고후5:15)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에게도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롬15:16)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의 일꾼이 되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따릅니다

1)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입니다.(롬15:20)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고전1:21b) 전도야말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막16:15)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입니다.

2)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사명입니다.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롬15:24)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성도간의 교제는 공동체(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윗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과 화목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합니다.(살전5:14)

3) 복의 근원으로서 사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롬15:30)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충만한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6:9)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복을 나누어주어야 할 복의 근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지역과 족속의 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사귐과 나눔을 통한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께 받은 충만한 복을 베풀고 전달하는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영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선교의 동역자들

주제 : 성도는 복음 사역자들을 영적, 물질적으로 후원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 **롬 16:1~2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반드시 읽고 깊이 있게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은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롬16:7), '형제'롬16:14), 그리고 '성도'(롬16:15)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사람들을 자랑스러운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로마 교회 교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뵈뵈입니다. 바울은 그를 자매로 부르고 있습니다.(롬16:1b) 뵈뵈 자매는 바울이 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전달한 사람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롬16:1)

겐그레아는 고린도 동쪽 15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인디옥, 알렉산드리아와 연결되는 항구입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행18:18)이고, 뵈뵈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1)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뵈뵈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그녀를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롬16:2b)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십시다.

2) 추천을 받을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롬16:1b)

추천은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신앙, 인격이 믿을 만하고, 누구에게나 본이 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책임을 다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 추천하고 추천 받을 만한 좋은 일꾼이 되십시다.

3) '우리'라고 불리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자매 뵈뵈'(롬16:1b)라고 했습니다. 혈통으로 되어진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꾼들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너와 내가 한 공동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없앨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좋은 일꾼 되십시다.

"너희가 주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롬16:2a)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말은 뵈뵈를 교회 안에서 자매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합당한 대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마 10:40)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소한 뵈뵈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도와주면 그것이 곧 바울을 영접하고 돕는 일이며 주님을 돕고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소용대로 도우라"는 것은 얼마만큼만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도우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일꾼들을 잘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 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없음)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나의 사역자

주제 : 성도는 세상 지혜를 버리고 성령의 지혜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 롬 16:3~4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에는 2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칭찬이 붙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이 아주 많이 쓰여졌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쓰고 지나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롬16:3)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에서 출생하였고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에 따라 고린도로 옮겨왔고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행18:2)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열심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며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의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롬16:3a)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역자란 동일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로 돕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개인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전3:9)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롬16:5a)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내 집을 교회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내 집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롬16:4b)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직접 복음 전도에 힘썼고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른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봉사를 잘 하는 길입니까?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따라 힘써서 일하는 것이 교역자를 돕고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 놓을 수 있었다는 말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요 내가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 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랑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노트

주여! 부족한 저를 의인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50일 습관일지

주후	년	월	일

● 아침에 깨어나기 훈련

시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역	실행 내용	
1	일어나기	잠자리 정리하기, 운동(발끝치기, 모관운동, 붕어운동)	□
2	신체적 영역	샤워, 양치, 온수 마시기	□
3	영적인 영역	킹덤빌더 선포기도문	□
4	정신적 영역	일정표 계획하기, 아침 일기 쓰기	□
5	관계적 영역	가족, 교구, 교회, 민족, 선교지, VIP를 위한 기도	□

● 로마서 필사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점

● 일정 계획하기 : 오늘 가장 중요한 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 저녁 마음 정리하기 훈련

1. 오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일은 무엇이 있었는가?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가?

3. 감사일지 3가지 쓰기

(1)

(2)

(3)

○ 나를 칭찬하기

(1)

(2)

(3)

4. 성막예배 기도문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기